

# 2000년간 인류와 함께한 편지... 불멸의 가치 이야기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투 더 레터

사이먼 가필드 지음, 김영선 옮김

“비할 데 없는 조제핀, 당신이 가진 이상한 힘은 무엇이었어? 당신의 한 가지 생각이 내 목숨을 해치고, 내 영혼을 갈라 리 찢어놓고 있소... 우리가 다 툰다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부정해야 한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소. 당신이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유혹했고, 그것들은 항상 당신 것이오. (중략) 세 번의 키스를 보내오. 한 번은 당신 가슴에, 한 번은 당신 입술에 그리고 한 번은 당신 눈에.” (나폴레옹이 연인 조제핀에게)



위의 편지는 1973년 소더브지가 경매에 내놓은 편지다. 나폴레옹이 새 연인 조제핀에게 쓴 내용이다. 관계가 시작될 무렵의 극심한 감정 상태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편지가 쓰인 날(1795년 12월~1796년 3월 추정)은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을 눈앞에 둔 즈음이었다. 조제핀과 말다툼을 벌인 후 써내려간 편지에는 결핍과 극단의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도 한 연인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폴레옹도

로마 유적지 편지에서 이메일까지...

사랑의 기쁨과 슬픔 전하는 전달자

개인 소통 창구이자 역사적 역할 담당도

사람 앞에서는 범부여 지나지 않았다. 누군가(연인)의 부재에 애가 달아본 이들이라면 나폴레옹의 심리를 심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사랑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귀가 솔깃해진다. 특히 유명인들의 연애편지는 비밀을 훑쳐본 듯한 짜릿한 쾌감마저 갖게 한다. 그것은 편지가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조용히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 이메일과 SNS에 가려진 ‘편지’의 가치와 역할에 주목한 책이 발간됐다. 영국의 논픽션 베스트셀러 작가 사이먼 가필드가 펴낸 ‘투 더 레터’는 고대 로마 유적지에서 발굴한 편지 서판부터 오늘날 이메일까지를 아우른다. 장장 스무 세기에 걸친 편지의 역사, 편지에 대해 몰랐던 사실과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은 ‘타임스’,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 10여 개 세계 주요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내이치’는 “이 책은 개인적인 편지가 2000년간 지녀온 열정적이면서도 삶을 바꾸는 힘에 대한 연서다”라고 상찬했다. “편지에 관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편지’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방대한 자료와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 작가이자 문화비평가인 애너폴 브로야드는 “편지를 잘 쓰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편지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했다. 저자인 사이먼 가필드가 편지를 주제로 택한



정음 느린 우체통.



남평 마음소리 우체통.

이유일 것 같다.

사실, 편지는 오랜 과거부터 소통을 담당하는 매개체였다. 형태와 방식만 달라졌을 뿐, 그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진리다. 대개의 경우 편지는 개인적인 소통의 통로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 로마의 플리니우스의 서신이다. 그는 서기 79년 폼페이 배수비오산 폭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편지로 남겼다. 당시 역사가인 타키투스에게 쓴 편지에는 화산 폭발의 조짐과 타는 듯한 열기가 배어 있다.

한편 편지는 서간문학으로 발전했으며 소설이라는 장르를 태동시켰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계발서뿐 아니라 독보적 역사 입문서 역할까지도 담당했다.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무렵 세비네부인은 1300통의 편지를 남겼고 10여 권의 서간집으로 묶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목을 끄는 것은 사랑에 관한 편지일 것이다. 사제지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프론토, 시인인 테드 휴스와 실비아 플라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배럿이 주고받은 편지 등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저자는 “하나의 세계와 그 안에서 개인이 한 역할을 이렇듯 직접적이고, 이렇듯 강렬하고, 이렇듯 솔직하게 그리고 이렇듯 매력적으로 되살릴 방법이 달리 무엇일까? 오직 편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아날로그·2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로날도 몽크 지음, 김한솔기 옮김 '마르크스 2020'**

오늘날 마르크스가 지닌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마르크스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낸시 프레이저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끌어 가는 자본주의와 그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르크스식 접근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마르크스가 탄생한지 20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17년은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출간한 지 150년이 되는 해였다. 자본주의 위기가 대두되는 작금에, 세계 곳곳에서는 마르크스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구실 수석 연구원인 로날도 몽크가 ‘마르크스 2020’을 펴냈다. 저자는 마르크스 사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쇠락했는지 조명한다. 또한 작금의 자유주의 폐해와 자본주의 위기가 다양한 마르크스주의를 탄생시킨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새롭게 탄생한 마르크스주의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다고 본다.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역사’, ‘마르크스주의와 자연’, ‘마르크스주의와 발전’,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 계급’,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마르크스주의와 문화’, ‘마르크스주의와 국가’,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마르크스주의와 미래’ 등이다. 저자는 “우리는 마르크스주의를 먼 의식의 지평에 묶어 두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덤북스·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의전연구소 지음 '국가 의전으로 다시 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점화된 민족적 독립 의지는 임시정부를 수립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 의전의 역사는 한 나라의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숭한 영광과 절절한 아픔, 통탄의 역사가 담겨 있다.



국내의 의전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현대의전연구소(소장 정현규)는 올해 대한민국정부수립 70주년과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 의전으로 다시 보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발간했다. 국가 의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의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다.

책은 서두와 2개의 장,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서두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시작으로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행사 장면 20선’을 담았다.

제1장은 의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전의 개념, 유래를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70년만에 걸쳐 일어났던 국가적 행사를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경축행사, 대통령 해외방문 등으로 구분해 중요 사진 800여 매와 함께 소개한다. 특히 1950~70년대 정부 수립 초기 어려웠던 현대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대한민국 의전사(儀典史)를 최초로 정리했으며 의전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해 일선 행사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박문사·4만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유진 지음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

“1000년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베이징을 보고, 3000년의 중국을 이해하려면 시안을 보라”는 말이 있다.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도시’라는 코드가 매력적이다.



오늘날 중국인에게 여섯 도읍지는 이런 곳이다. “시안에서 차부심을 찾고 뤼양에서 기도하며, 카이펑에서 기계를 얻고 항저우에서 낭만을 맞본다. 난징에서 외산상당하며, 베이징에서 미래를 본다.”

‘중국을 빚어낸 여섯 도읍지 이야기’는 중국사와 ‘공간’이 만난 중국 도읍지 이야기다. 천년 고도 시안에서 시작해 ‘삼국지연의’ 낙양으로 잘 알려진 뤼양, 송나라의 카이펑, 송나라의 고향 항저우, 근현대사 비극을 간직한 난징에서 베이징까지, 한 권에 중국의 3000년 역사 전체를 품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중국 문화와 역사와 문학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이유진 박사는 “중국사의 역사가 지원이 바로 역대 도읍지에 깃들여 있다. 도읍지로 중국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오래된 미래’를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다”며 집필의도를 밝혔다.

책은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 읽기를 시도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필터’를 거친 것”이라고 밝힌 저자는 멀리 실크로드를 포함해, 층층이 역사가 숨어 있는 도시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책에 정취를 더했다.

<메디치미디어·1만8000원>

/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